

## 지평,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영입

상임고문 겸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맡아

2015-04-11 10:27:20

법무법인 지평(대표 양영태)이 최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'지평인문사회연구소' 대표로 영입했다. 지평은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160여명이 소속된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으로, 거물급인 김 전 위원장의 영입으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.

김 전 위원장은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와 함께 법무법인 지평의 상임고문도 맡을 예정, 김 전 위원장 영입과 함께 신설될 지평인문사회연구소는 인문, 사회, 경제, 역사 분야의 연구와 출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.

김 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(2006년)과 재정경제부 1차관(2007년)을 거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다.

김덕성 기자(dsconf@legaltimes.co.kr)

Copyright©리걸타임즈(www.legaltimes.co.kr)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